「지방정부연구」 제22권 제3호(2018 가을): 509-532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2 No.3 (2018 Autumn)
http://dx.doi.org/10.20484/klog.22.3.21

Co-word analysis를 통한 가족 패러다임의 분석*

장 임 숙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족 패러다임의 역학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가족연구의 동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코워드분석방법(Co-word Analysis)을 활용하여 가족 패러다임의 전체적 특성을 분석하고, 시기별·학문분야별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시대적·학문적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KCI 등재학술지에 수록된 가족논문 5,171편을 대상으로 한다. 분석결과, 초기의 가족연구는 소수의 개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점차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하위주제가 발전하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학문분야에 따라 연구주제의 다양성과 키워드네트워크의 구조적 상이성이 발견되었다.

주제어: 가족연구, 연구동향, 가족패러다임, 동시출현단어분석, 사회네트워크분석

Ⅰ. 서론

한국의 가족연구는 김두헌(1949)의 「조선가족제도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1960년대 4년제 가정대학이 창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1] 1929년에 이화학당에 한국 최초의 가정학 고등교육기관인 가사과가 설립되어 1965년 가정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63년 12월에는 연세대학교에 4년제 정규가정대학이 신설되었다. 가정대학이 설립되어 기존의 가정교육학과, 가정학과로부터 가정관리학과, 아동학과 등이 독립되면서 이후 보다 전문적인 가족연구가 진행되었다(이정연·유영주, 1990: 10). 가족연구는 1960년대에 총 227편이 발표되었고, 이어 1970년대 733편, 1980년대 1,146편, 1990년대 3,693편, 2000년대 5,984편, 2010년 이후 6,455편으로 계속 증가되어 왔다.[2]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2023172)

1) 예컨대 고봉경(1963)의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김명호(1964)의 한국농촌에 있어서의 가족계획효과에 관한 연구, 최재석(1966)의 한국가족연구, 정광현(1967)의 한국가족법연구, 김두헌(1969)의 한국가족제도연구 등이 모두 1960년대에 발표되었다.

2) 한국학술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하여 논문제목에 '가족'을 검색한 결과에 따른 단순합산수치이다.

1949년 김두헌의 연구를 한국 가족연구의 출발로 본다면, 이제 한국 가족연구의 역사는 70년을 맞이할 시점에 다다랐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축적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문적 이론과 실천적 지식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가족문제와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응한 가족패러다임의 변화와 학제적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가족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70년간의 궤적을 되짚어보고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은 패러다임을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적 인식·이론·관습·사고·관념·가치관 등이 결합된 총체적인 틀 또는 개념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이 패러다임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학적 결과 위에서 혁명적으로 생성, 발전되고 쇠퇴하며,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된다고 말한다(http://www.doopedia.co.kr).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과학적 연구의 시대적 동향과 변화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70년간 가족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10여 편에 불과하다. 특히 가족연구 전반에 대한 고찰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연구흐름을 분석한 이정연·유영주(1990)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고, 가정학 분야에서조차도 김혜숙(2000)에 의해 2000년대 이전의 연구만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나머지 연구들은 특정분야나 특정주제에 국한된 연구라는 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 패러다임의 역학구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 가족연구의 동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계량정보학적 분석기법의 하나인 코워드분석방법(Co-word Analysis)을 활용하여 가족 패러다임의 전체적인 특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시기별·학문분야별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시대적·학문적 특성을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속의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패러다임이 과학적 개념의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학 문헌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코워드분석방법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도구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가족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연구는 크게 가족연구의 전반을 분석한 연구,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구,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대별된다.

먼저, 가족연구 전반을 분석한 이정연·유영주(1990)의 연구는 학문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연구들을 연대별로 분류하여 가족연구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화한 유일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1960년부터 1989년까지 발표된 가족논문 1,191편을 주제별, 연도별로 분류하여 분석했

다. 먼저, 주제에 따라 결혼 및 가족가치관, 가족관계, 가족구조, 가족문제, 가족연구경향, 성역할, 기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족관계(46%), 가족구조(24.4%), 가족문제(11.8%)의 순으로 연구가 많았다. 연대별로는 1960년대 98편, 1970년대 339편, 1980년대 75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에는 가족법 및 제도 분석과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방법론적으로 실태조사에 의존한 반면, 1970년대에는 부모자녀관계 및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론체계에 입각한 변인설정 등의 실증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장노년기 적응, 성역할, 가족폭력 등이 새로운 연구주제로 주목받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가족연구가 구조를 중요시 여기는 거시적 관점과 과정을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 중 어떤 관점도 철저히 연구되지 못한 채 학자에 따라 연구개념 및 연구대상 등이 상이하여 이론의 일반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둘째,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가족연구의 흐름을 파악한 연구로서 김혜숙(2000)의 연구는 1980년부터 1999년 10월까지 가정관리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가족학 논문 505편을 대상으로 주제별, 시기별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주제별로는 가족관계(168편), 결혼 및 가족가치관(110편) 분야가 가장 많으며, 장노년기, 가족생활교육, 스트레스, 가족폭력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반면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조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실천적 가족연구로서는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의 가족사회학 분야의 연구흐름을 분석한 함인희(2014)는 가족사회학이 1970년대 후반부터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연구주제의 다양화 및 시기별 부침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1970년대까지 가족기능, 전통적 친족제도 및 동족, 가족계획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나, 1980년대 이후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학적 논의, 가족주의, 부부중심적 가족관계, 주부의 삶, 사회구조와 가족 관계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2000년대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연계된 위기의식, 결혼이주가족의 증가, 가족과 시장, 국가의 관계 등이 가족사회학 영역으로 포섭되었다고 보고한다.

또한 노년학분야의 가족연구를 분석한 박충선 외(2008)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노년학회지에 실린 가족논문 181편을 대상으로 연구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연구주제의 다양화와 연구방법론의 발전을 확인하고, 기존이론의 적용이나 실천적 접근을 통해 노년기 가족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종단연구의 부재, 표집의 편의성, 이론의 현실 적용 부족 등을 한계로 제시했다.

셋째,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가족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최정혜(2010)의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발행된 국내 학술지 논문 43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 22편을 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주제로 결혼 및 부부관계(23.1%), 자녀문제(18.5%), 한국생활적응(15.3%)이 많이 다루어졌고, 계량적 연구로서 조사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질적 분석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국가별 민족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가족연구와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 연구 등을 향후 과제로 제안했다.

김순옥 외(2012)는 한부모가족 자녀에 관한 논문을 중심으로 연도별, 연구방법별, 연구주제별

경향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지 중 가족관련 학술지 7종을 대상으로 총 42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로는 1990~1999년 6편(14.3%), 2000~2004년 12편(28.6%), 2005~2011년 23편(54.8%)이 발표되었고, 연구방법별로는 양적연구 33편(78.6%), 질적연구 7편(16.7%), 양적·질적연구 2편(4.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별로는 아동이 23편(54.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 4편(9.5%)이었으며, 연구주제는 적응관련 연구 30편(71.4%), 프로그램 8편(19%), 학업 1편(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족의 자녀발달단계별 연구와 질적 연구 및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족여가 관련연구에 초점을 둔 이문진 외(2009)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발행된 가족여가 관련 논문 41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연구는 가족여가의 개념을 가족여행 등의 협소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획일적이고 추상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거나 개인적인 측면에 편중하여 가족단위 여가가 간과되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리고 김은정(2015)의 연구는 2000년 이후 손자녀 돌봄지원 연구의 동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된 국내 학술지의 연구논문 76편을 분석한 결과,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학, 아동학, 노년학, 간호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로 연구가 확대되었고, 주로 맞벌이가정의 취업모 양육지원 조모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연구주제로 돌봄지원 가족구성원의 양육스트레스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는 대부분 특정분야나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가족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가족연구 전반을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는 1990년에 발표된 이정연·유영주(1990)의 연구가 유일하고, 가족학 분야만 하더라도 연구동향은 김혜숙(2000)에 의해 1999년까지만 분석되었다. 특히 가족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정성적인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때 많은 수의 자료를 분석할 경우 자료의 수집과 분류 해석 등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직관, 경험, 통찰력에 의존한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장임숙 외, 2011: 355). 반면에 적은 수의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 대표성이 문제시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성적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방법론의 효율성, 보편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정보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2. 계량정보학적 분석방법으로서 코워드분석방법(Co-word Analysis)

계량정보학(Informetrics)은 계량서지학(Bibliometrics)과 계량과학학(Scientrometrics)을 포괄하는 연구영역으로서, 기록물이나 문헌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정보의 정량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방법론이다. 계량정보 분석방법으로서 과학의 역학구조를 시각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동시인용분석(cocitation analysis)과 코워드분석(co-word analysis)이 있다. 과학 분야에서

발행된 모든 논문은 자신이 인용한 논문과 자신을 인용한 논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동시인용분석방법(co-citation analysis)은 특허 문서나 논문의 참고(reference)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인용관계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윤병운 외, 2008: 14). 이에 비해 코워드분석방법(co-word analysis)은 과학 분야에서 발행된 문헌을 대표하는 단어들의 연관성 정도를 측정하여 연구주제와 주제간 관계, 그리고 지식의 패턴과 변화추세를 효과적으로 매핑하는 콘텐츠 분석기법이다.

코워드분석방법은 1980년대 프랑스 파리국립광업학교의 혁신사회학센터(Centre de Sociologie de 1'Innovation of the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Mines of Paris)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의 협업을 통해 개발되었고, 이를 "LEXIMAPPE"라고 불렀다(He, 1999: 134). 코워드분석의 획기적인 연구는 1986년에 과학기술의 역동성을 도식화한 Callon 외(1986)의 저서이다. 이 책은 코워드분석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행위자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코워드분석의 실례들을 다루고 있다(Callon 외, 1986). 이 책이 발간된 이후 코워드분석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 다양한 국가로 확산되었고, 후속연구의 증가로 코워드분석의 절차, 측정 및 해석이 크게 향상되었다.

코워드분석은 단어가 과학적 개념, 아이디어, 지식의 중요한 운반체로서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 기초한다(Van Raan & Tijssen, 1993).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정한다(이수상, 2013: 100 재인용). 첫째, 학술논문의 저자들은 어느 정도 유한하고 정형화된 레퍼토리에서 단어를 선택한다. 둘째, 개념사이의 중요한 관계를 주장할 때 항상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셋째, 여러 학자들이 동일한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해당 연구영역에 대한 인지구조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이를 전제로 코워드분석은 특정 연구주제를 대표하는 2개 이상의 키워드가 동일한 문헌에 출현할 때 키워드에 나타난 주제들 간에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본다.

코워드분석방법은 주로 실태분석, 경향분석, 비교분석, 인용분석 등에 사용되며, 세 단계를 거쳐 분석이 이루어진다. 첫째, 특정 주제 또는 연구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부 키워드 또는 표제를 문헌에서 추출하며, 이 때 출현빈도가 특정 임계치를 초과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동일한 문서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의 동시출현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코워드 매트릭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코워드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심층 분석시, 포함지수(inclusion index) 및 유사성지수(proximity index)와 같은 단어의 동시출현빈도에 기초한 지수(index)는 단어 간의 관계 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러한 지수를 기초로 단어들은 그룹으로 클러스터링(clustering)되어 네트워크 지도(map)로 표시되고, 네트워크 지도를 시기별로 비교하여 과학의 역동성을 파악한다(He, 1999: 134). 따라서 코워드분석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과정과 구조적 관계, 지식의 발전과 진화의 경계 혹은 학문적 경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과학적 지식의 발전과 진화에 주목한 최근 연구를 보면, Dehdarirad 외(2014)는 고등교육과 과학에서의 젠더 차이에 관한 연구의 구조와 진화를 분석하기 위해 Thomson Reuters가 제공하는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Web of Science"에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652편의 논문과 리뷰

를 대상으로 코워드분석을 수행하여 연구의 발전과정을 시기별 분석하였다. 그리고 Zong 외(2013)은 코워드분석을 통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의 도서관정보과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의 지식구조 변화를 파악했으며, An & Wu(2011)는 코워드분석방법으로 Pub Med에서 추출한 논문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분야 연구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Ravikumar 외(2015)는 'Scientometrics'저널에 게재된 95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text-mining)과 코워드분석(co-word analysis)을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정보계량학의 지적구조와 동적 변화를 탐구했다. 국내에서도 상담학, 지적장애, 지식경영, 관광경영, 품질경영에 관한 연구동향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여 지식의 발전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조남옥·조규락, 2017; 이성용·김진호, 2017; 윤승정·김민용, 2017; 이현주·이인희, 2014; 박만희, 2016).

이상과 같이 코워드분석방법은 사회인지적 네트워크의 구조와 진화를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도구라는 점에서(Bauin, 1986) 가족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구조적 특성과 발전과정을 탐구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족 패러다임의 전체적 조망과 시대적·학문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코워드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족연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한다. 다만, 가족연구의 70년사를 분석하기에는 자료수집과 통계분석에 제약이 따르므로 2000년 이후 가족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0년 이후의 연구로 분석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코워드분석방법은 논문의 저자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네트워크를 생성하는데, 2000년 이전 연구의 경우 저자키워드가 없는 논문들이 많아서 2001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연구란 가족관계, 가족구조, 가족문제, 가족가치관, 성역할, 가족연구 경향 등 가족을 주제로 하는 연구를 말한다.[3]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KCI 등재학술지에 수록된 국문 논문 중에서 논문제목 혹은 키워드에 '가족'이 포함된 논문이다. 자료 수집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의 상세검색서비스를 이용하였고, 검색 조건에 부합하는 논문은 총 6,471편이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 원문제공기관에 따라 저자가 부여한 한글키워드가 없거나 중복 검색된 논문, 비국문 논문, 가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논문을 제외하여 총 5,171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족연구의 시기별 패러다임의 변화와 학문분야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집된 논문을 시

3) 가족연구의 주제는 이정연·유영주(1990)의 분류기준에 따른다.

기별, 학문분야별로 분류하였다. 시기별 분석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를 시간 범위로 설정하고, 지난 17년간의 가족연구를 가족정책의 변화주기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국가차원의 가족정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시기를 1시기(2001년~2005년), 2시기(2006년~2010년), 3시기(2011년~2015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4시기(2016년~2017년)는 연구 변화와 최근 동향을 이해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학문분야별 분석은 2017년 2월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의 학문분야 분류기준(대분야)을 적용하여 공학,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학, 자연과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시기별, 학문분야별 연구 현황

시기	2001년~2005년		2006년~2010년		2011년~2015년		2016년~2017년	
논문수	409편		1,520편		2,285편		957편	
학문분야	공학	농수해양	복합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의약학	인문학	자연과학
논문수	42편	3편	507편	2,761편	65편	330편	943편	520편

2. 분석방법

코워드분석은 동시 출현하는 단어의 쌍을 기초로 연구주제를 추출하고,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기초로 패러다임을 발견하며, 나아가 시기별 분석을 통해 패러다임의 발전과 진화의 경계를 규명하고, 학문분야별 분석을 통해 학문적 경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워드분석을 위해 논문의 저자키워드를 분석단위로 선택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의 저자키워드 리스트에서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 띄어쓰기를 제거하고 키워드 정제작업(cleansing)을 통해 동일한 개념의 다른 용어를 적절한 키워드로 변환했다. 동일한 개념의 다른 키워드들이 다수 포함되면 이들 간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중요한 연결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특히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는 비표준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복되는 동의어의 정리는 중요한 키워드의 분산을 막고 결과의 오차를 줄여주기 때문이다(Whittaker, 1989; 김혜리·박용태, 2004). 키워드 정제작업은 띄어쓰기, 동의어·유사어, 단수·복수, 조사유무·생략어, 영어번역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이수상, 2013: 102). 물론 정제작업은 시소러스나 사전을 준거로 삼는 것이 적절하나, 현재 가족학의 시소러스가 없으므로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하되, 주관성이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정제작업을 최소화하였고, 키워드 정규화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2〉는 키워드 정제기준의 예시에 해당한다.

〈표 2〉 키워드 정제기준[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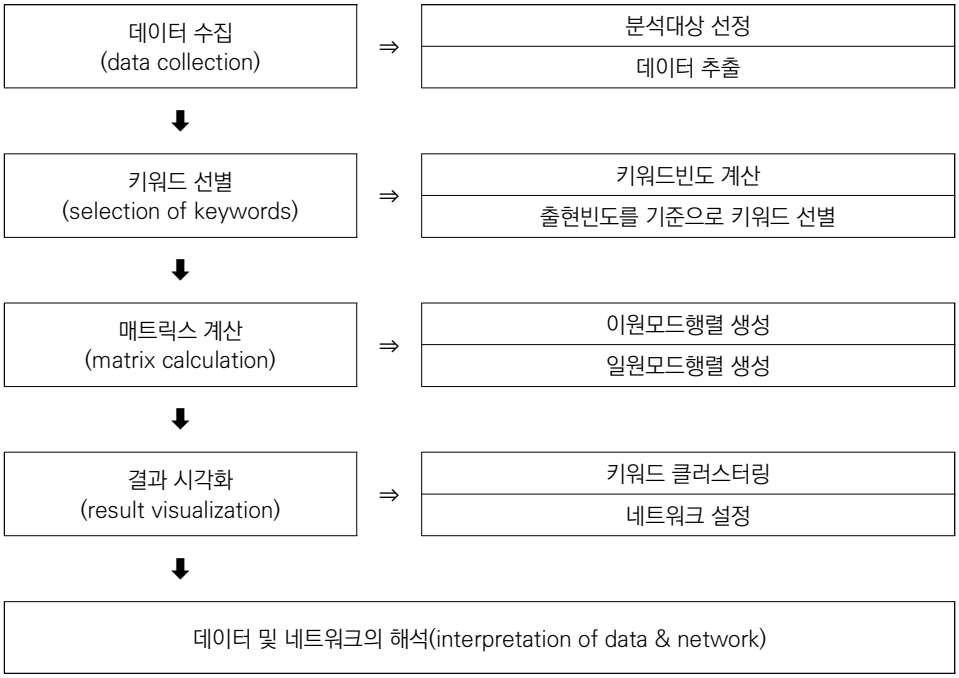
기준	예시
동의어·유사어	•이주자, 이주민, 외국이주민, 이민자, 외국인이주자 ⇒ 이주민 •가족갈등스트레스,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관련스트레스, 가족문제스트레스, 가족생활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단수·복수	•아동, 아이들 ⇒ 아동
조사유무·생략어	•인간의 존엄성, 인간존엄성 ⇒인간존엄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영어번역의 차이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키워드 정제과정에서 학자들에 의해 동일한 개념의 용어들이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용어의 혼용은 명확한 의미전달의 어려움과 개념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론적·실천적 인식의 기초를 공고히 하려면 가족학 용어의 명칭과 의미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정제작업을 마치면 키워드 빈도계산을 거쳐 이원모드(2-mode) 행렬을 작성한다. 이원모드행렬이 생성되면 출현빈도가 낮은 키워드를 제외한 다음 동시 출현하는 단어 쌍의 유사도지수를 기초로 키워드간 일원모드(1-mode) 행렬을 생성한다. 일원모드 행렬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패러다임 맵을 작성하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해 각 그룹의 하위주제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와 주제들을 연결하는 매개 키워드를 파악한다. 중심성(centrality)은 Freeman(1979)이 제안한 연결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매개중심성(betweeness centrality)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연결정도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많은 노드들과 연결될수록 높고, 매개중심성은 다른 노드들을 서로 매개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 또한 네트워크의 하위그룹을 파악하고자 긴밀하게 연결된 키워드들을 그룹으로 묶는 응집성(cohesion) 분석을 수행한다. 응집성분석은 Girvan & Newman(2002)가 제안한 링크매개성(Link Betweenness)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community)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커뮤니티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의 모든 링크의 매개중심성을 계산하고, 최대값을 가진 링크를 찾아 제거한 다음, 모든 링크의 매개성을 다시 계산하여 링크가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이 절차를 반복하면 링크 순서가 정해지는데, 링크가 더 많이 제거될수록 컴포넌트가 더 많이 생겨나고, 이러한 컴포넌트는 각 수준의 커뮤니티와 동일하다. 이상의 분석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4) 키워드 정제작업을 통해 동일한 개념의 다른 용어들은 저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 즉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로 통일시켰다.

〈그림 1〉 가족연구의 코워드분석 단계



Ⅳ. 분석결과

1. 가족연구의 키워드네트워크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가족 논문 5,171편의 전체 키워드네트워크는 총 11,342개의 노드와 54,337개의 링크로 구성된다. 추출된 키워드의 규모가 너무 방대한 경우에는 출현빈도를 중심으로 적절한 수의 키워드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이수상, 2013: 103). 노드 수가 너무 많을 경우 네트워크가 복잡해져서 유의미한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적의 키워드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지도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특허분야에 코워드분석을 활용한 Callon(1986)에 의하면, 특정 단어들은 실제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지 않고 전체에 통합되었고, 오히려 삭제되었을 때 지도의 구조는 변경되지 않은 채 단순화되었음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족연구의 전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5] 전체 논문에서 10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14개, 5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35개, 30

5) 표준화된 키워드 선별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문수와 키워드수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최종 결정한다. 선행연구들은 키워드수가 방대한 경우 출현빈도순으로 상위 10위, 35위, 50위권에 랭크된 단어들을 분석하거나(정승환 외, 2014; 김정헌, 2016; 김일환, 2011), 혹은 출현빈도가 10회, 20회, 50회, 100회

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는 81개이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는 '가족'(432회)이고, 그 다음이 '다문화가족' 249회, '우울' 210회, '가족건강성' 176회, '가족기능' 166회, '가족관계' 157회, '자아존중감' 149회, '사회적 지지' 132회, '가족주의' 125회, '가족지지' 117회 등의 순이다. 출현빈도가 높은 81개의 키워드들은 가족연구의 주요 개념이자 연구주제에 해당한다.

〈표 3〉 가족연구의 주요 키워드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가족	432	28	자기효능감	59	54	일-가족양립정책	38
2	다문화가족	249	28	가족해체	59	56	가족로망스	37
3	우울	210	28	가족가치관	59	57	가족적응	36
4	가족건강성	176	31	가족친화제도	57	57	가족관계만족도	36
5	가족기능	166	32	스트레스	51	59	삶의만족도	35
6	가족관계	157	32	정신건강	51	59	돌봄부담	35
7	자아존중감	149	32	여성	51	61	자살생각	34
8	사회적지지	132	35	가족스트레스	50	61	이혼	34
9	가족주의	125	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9	61	부부갈등	34
10	가족지지	117	36	가족치료	49	61	양육효능감	34
10	가족탄력성	117	38	자아분화	48	61	가족서사	34
12	청소년	116	39	직무만족도	46	61	가족돌봄	34
13	결혼이주여성	111	40	한부모가족	45	67	아동	33
14	일-가족양립	101	40	가족갈등	45	67	불안	33
15	가족정책	95	42	저출산	45	67	다문화주의	33
16	일-가족갈등	84	43	생활만족도	43	70	가족요인	31
17	학교적응	79	43	조손가족	43	70	문제행동	31
18	삶의질	78	45	치매	42	70	성별차이	31
18	노인	78	45	건강가정지원센터	42	70	가족소설	31
20	가족돌봄제공자	76	47	결혼만족도	41	70	노인돌봄	31
21	질적연구	74	47	가족친화조직문화	41	75	대학생	30
22	가족응집성	67	47	결혼	41	75	다문화	30
23	가족지원	65	47	가족구조	41	75	가족지원서비스	30
23	의사소통	65	51	젠더	40	75	가족적응성	30
25	양육스트레스	64	52	국제결혼	39	75	아동학대	30
26	매개효과	61	52	다문화사회	39	75	모성	30
27	가부장제	60	54	자아탄력성	38	75	가족법	30

두 번째 단계로 3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키워드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가족연구의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주제를 파악하고자 중심성분석을 수행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많은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연결정도중심성은 키워드 가

이상인 키워드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김용학 외, 2013; 심재후·최명길, 2013; 임윤서 외, 2015; 조남옥·조규락, 2017; 박만희, 2016).

운데 '우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가족기능'의 순으로 높다. 연결정도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가족연구의 하위주제를 대표하는 동시에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나타낸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매개역할을 하는 매개중심성은 '학교적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성별차이', '부부갈등', '가족' 등의 순이다. 이들은 다른 연구주제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연구영역의 확대에 기여한다. 전체적으로 가족연구는 우울, 자아존중감, 정신건강과 같은 가족의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가족기능을 중요한 연구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매개중심성이 높은 성별차이, 부부갈등,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직무만족도는 학문의 진화를 추동하는 확장성있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학제적·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가족연구의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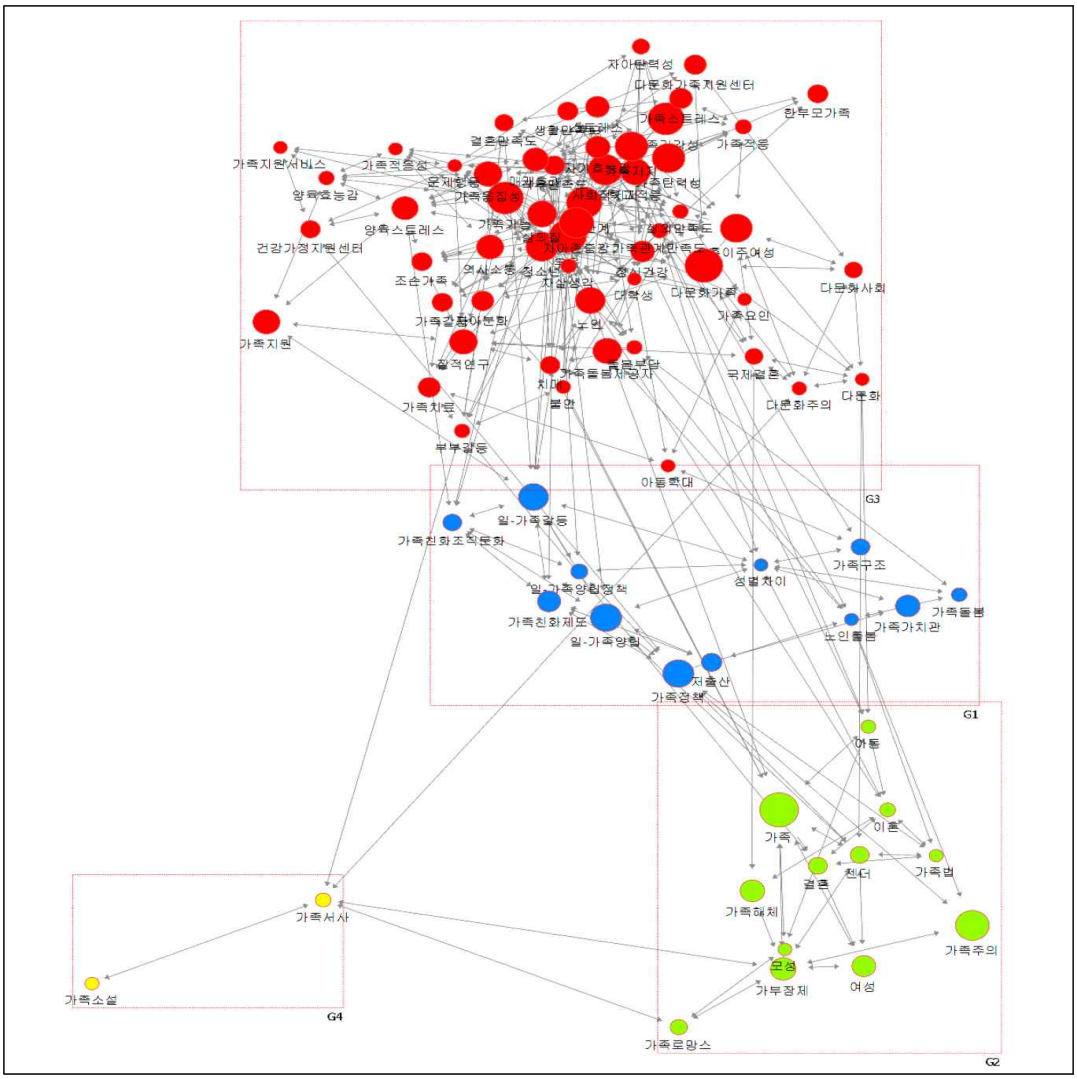
순위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1	우울	0.3125	학교적응	0.056938
2	사회적 지지	0.3	자아존중감	0.054396
3	자아존중감	0.3	성별차이	0.052582
4	학교적응	0.2375	부부갈등	0.052171
5	가족기능	0.2375	가족	0.050459
6	청소년	0.2125	사회적 지지	0.050162
7	정신건강	0.2	우울	0.049199
8	의사소통	0.2	결혼이주여성	0.047846
9	매개효과	0.1875	직무만족도	0.045764
10	가족응집성	0.1875	다문화가족	0.043724

키워드네트워크의 하위그룹을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의 하위집단은 Modularity 값이 32.096일 때 4개의 커뮤니티로 나누어졌다.[6]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들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4가지 하위주제로 나뉘는데, G1은 가족가치관, 가족구조, 가족돌봄, 가족정책, 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조직문화, 노인돌봄, 성별차이, 일가족갈등, 일가족양립, 일가족양립정책, 저출산이라는 12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이다. G1과 연결된 G2는 가부장제, 가족, 가족로망스, 가족법, 가족주의, 가족해체, 결혼, 모성, 아동, 여성, 이혼, 젠더라는 12개 노드로 구성된 그룹이다. 가장 규모가 큰 G3은 사회적 지지, 우울,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스트레스, 가족응집성 등 55개 노드로 구성되고, 가장 규모가 작은 G4는 가족서사와 가족소설로 이루어진 클러스터이다. 여기서 G1은 일-가정양립, G2는 젠더, G3는 사회적 지지, G4는 가족서사라는 주제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활발

6) 커뮤니티 분석에서는 Modularity 값이 가장 클 때 군집화가 잘 이루어진 커뮤니티라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Modularity 값이 1.25보다 낮으면 '나쁨', 1.25 이상 2.75 이하이면 '보통', 2.75 이상 3.5 이하이면 '좋음', 3.5 이상이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Girvan & Newman, 2002).

한 연구주제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인 반면, 저조한 영역은 가족서사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가족문제는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서사(G4)는 사회적 지지(G3)와 젠더(G2)와 연결되지만 일-가정양립(G1)과는 연계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젠더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일-가정양립(G1)에 의해 매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가족연구에서 일-가정양립은 젠더와 사회적 지원(정책)을 이어주는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여성학과 사회과학간 융합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가족연구의 커뮤니티 클러스터링



2. 시기별 가족연구의 동향

시기별 키워드네트워크는 각 시기의 논문수와 키워드 수를 고려해 출현빈도 10회 이상 키워드를 대상으로 한다.[7] 시기별 키워드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하여 상위 10개 키워드를 각 시기의 핵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1시기(2001~2005)에는 가족가치관, 가족건강성, 가족기능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주제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데 반해 2시기(2006~2010)에는 우울과 사회적 지지, 일-가족양립과 가족정책이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었으며, 재혼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관심이 증대되었다. 2시기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되어 시행된 기간으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직장-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연구주제와 정책과제가 연계성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는 맞벌이가족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한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기능의 변화, 즉 남성1인생계부양자모델에서 부부공동부양모델로의 전환에 대응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가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과 달리 3시기(2011~2015)에는 학교적응과 자살생각, 부모자녀의사소통과 같은 자녀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이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가족 및 청소년 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간 연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톱스타들의 연이은 자살과 증가하는 학교폭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지속적 증가와 학교폭력, 아동성폭력, 자살, 가족갈등 등을 경험한 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강조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4시기(2016~2017)에는 불안, 삶의 만족도, 노인, 대학생이 새로운 주제로 등장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건과 두 번의 지진으로 재난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데다, 고용불안과 실직 위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리사회가 극단적 불안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대응한 욜로와 소확행, 워라밸 문화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핵심 키워드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높은 청년실업률과 삼포세대의 등장, 고령화에 따른 노후불안은 대학생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시기별 비교분석을 통해 가족연구는 가족가치관, 가족건강성, 가족기능이라는 전통적인 주제에서 점차 일-가정양립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로 변화되어 왔고, 향후 불안사회와 고령화, 청년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한 새로운 가족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7) 시기별 비교분석을 위한 키워드 선별기준과 관련해 조남옥·조규락(2017)은 시기별 비교분석을 위해 빈도수 10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를 선정했고, 고병준·어수형(2017)은 3회 이상 키워드, 박수진·나주몽(2016)은 2회 이상 키워드, 권진영 외(2010)는 빈도수 상위 50개의 단어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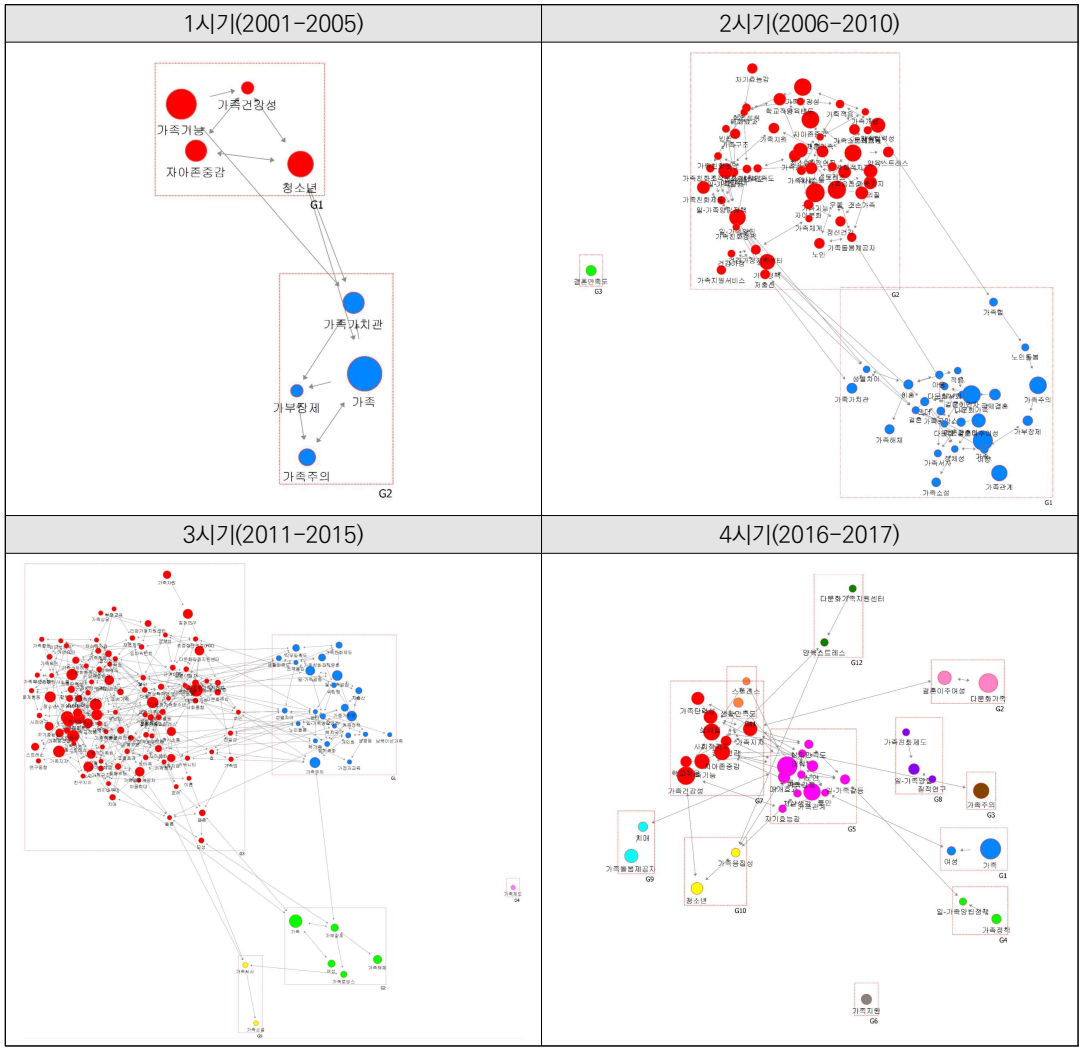
〈표 5〉 시기별 연구주제의 중심성

순위	1시기(2001~2005)		2시기(2006~2010)		3시기(2011~2015)		4시기(2016~2017)	
1	가족가치관	0.571429	우울	0.144737	사회적 지지	0.105263	자아존중감	0.315789
2	가족	0.571429	사회적 지지	0.131579	학교적응	0.105263	우울	0.315789
3	청소년	0.571429	일-가족양립	0.105263	우울	0.105263	사회적 지지	0.236842
4	가족건강성	0.428571	일-가족갈등	0.105263	자살생각	0.097744	가족지지	0.210526
5	가족기능	0.428571	가족정책	0.105263	매개효과	0.090226	자살생각	0.184211
6	자아존중감	0.428571	재혼가족	0.092105	부모자녀의사소통	0.082707	불안	0.184211
7	가부장제	0.428571	의사소통	0.092105	다문화	0.082707	삶의 만족도	0.157895
8	가족주의	0.285714	청소년	0.092105	자아탄력성	0.082707	노인	0.157895
9	-	-	매개효과	0.092105	삶의 질	0.082707	대학생	0.157895
10	-	-	다문화	0.092105	가족기능	0.082707	삶의 질	0.131579

시기별 가족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응집성분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시기에 따라 키워드네트워크는 구조적으로 다른 특성과 변화를 보인다. 1시기에는 '가족기능'과 '가족'을 중심으로 소수의 개념들이 연결된 이원구조를 보였으나, 2시기에 접어들면 한편에서는 우울, 사회적 지지, 일가족양립이라는 새로운 주제들이 기존 주제들과 결합하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다른 편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 국제결혼, 젠더, 이혼, 가족제도 등이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확대 재편된 형태의 이원구조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 '결혼만족도'는 핵심 컴포넌트와 분리된 채 고립된 연구주제로 존재한다. 반면에 3시기에는 기존 이원구조의 통합과 새로운 개념들의 등장으로 주제간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어 '사회적 지지'로 대표되는 대규모 클러스터가 생성된 동시에 일가족양립, 가족, 가족서사, 가족제도로 연구주제가 분화되어 다원화된 구조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분석기간이 짧은 4시기에는 연구주제간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제가 파편화된 구조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족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보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연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주제들이 다양화되었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주제영역을 중심으로 연구의 분화와 세부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전체적인 통합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림 3〉 시기별 가족패러다임의 변화



3. 학문분야별 가족연구의 동향

학문분야별 가족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2017년 2월 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의 학문분야 분류기준(대분야)에 따라 공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의약학, 자연과학, 복합학, 사회과학, 인문학으로 구분하여 중심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은 출현빈도가 10회 이상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족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되, 논문수가 적어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분야의 경우 키워드 선별기준을 조정하였다. 전체 논문수가 3편에 불과한 농수해양분야는 출현빈도 1회 이상 키워드, 공학과 예술체육은 2회 이상 키워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나머지 학문분야는 10회 이상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결과, 공학 분야는 시계열분석, 위상공간, 카오스현상, 비선형거동 등 수학적·물리적 개념

이 주류를 차지하고, 환경적 측면에 관심이 크다. 농수해양 분야는 다문화가족과 농촌, 자립, 영양섭취상태, 식사 등과 같이 농촌의 다문화와 가족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예술체육 분야는 가족드라마, 가족로망스, 외모관리태도, 무용, 스포츠 등으로 대중문화 속 가족개념과 예체능 관련 가족프로그램이 중심주제가 되고 있다. 세 분야는 가족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가족관련 개념보다는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개념들이 연구주제를 대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구가 다소 활발한 의약학의 경우 우울, 치매,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노인과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자연과학과 복합학분야는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 가족기능 등 가족학의 주요 개념들이 하위주제를 대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과학분야는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성평등, 방법론적 개념인 매개효과도 중요한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인문학분야는 국가, 가부장제, 아버지, 욕망, 한국전쟁 등 주로 권력구조와 젠더가 하위주제를 대표한다. 결과적으로 학문분야에 따라 학문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중심주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연구대상으로서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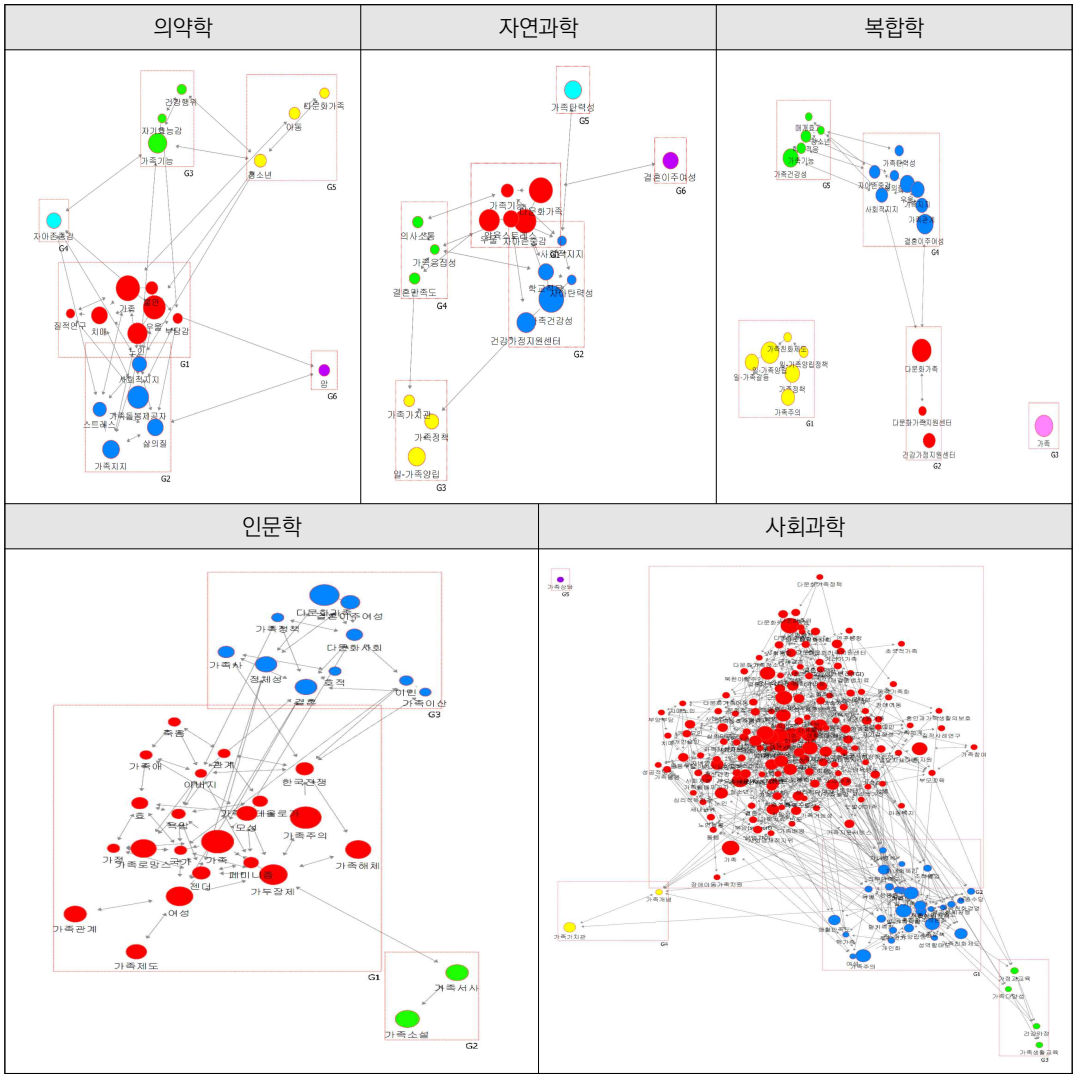
〈표 7〉 학문분야별 연구주제의 중심성

순위	공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의약학	
1	시계열분석	0.222222	의지	0.363636	가족드라마	0.24	우울	0.526316
2	위상공간	0.222222	임파워먼트	0.363636	가부장제	0.16	사회적지지	0.421053
3	카오스현상	0.222222	다문화가족	0.363636	가족로망스	0.16	가족	0.421053
4	비선형거동	0.222222	농촌	0.363636	외모관리태도	0.12	가족돌봄제공자	0.368421
5	가족	0.222222	자립	0.363636	성별차이	0.12	삶의질	0.315789
6	의사소통	0.111111	한국성인	0.272727	사회비교	0.12	노인	0.315789
7	물리적환경	0.111111	영양섭취상태	0.272727	사회화압력	0.12	청소년	0.263158
8	가족지지	0.055556	가족식사	0.272727	아동	0.12	치매	0.263158
9	인터넷환경	0.055556	아침식사	0.272727	무용	0.12	스트레스	0.263158
10	주거환경	0.055556	가족건강성	0.181818	스포츠	0.12	부담감	0.263158
순위	자연과학		복합학		인문학		사회과학	
1	양육스트레스	0.411765	우울	0.318182	국가	0.28125	사회적지지	0.133333
2	사회적지지	0.294118	사회적지지	0.318182	가부장제	0.28125	우울	0.116667
3	학교적응	0.294118	삶의질	0.318182	가족	0.28125	학교적응	0.111111
4	자아존중감	0.294118	청소년	0.227273	아버지	0.25	성평등	0.105556
5	다문화가족	0.235294	자아존중감	0.227273	욕망	0.25	매개효과	0.1
6	가족응집성	0.235294	학교적응	0.227273	결혼	0.25	자아존중감	0.1
7	가족기능	0.235294	가족지지	0.181818	한국전쟁	0.21875	가족응집성	0.1
8	가족건강성	0.235294	가족기능	0.181818	여성	0.21875	자아탄력성	0.094444
9	우울	0.176471	결혼이주여성	0.181818	젠더	0.21875	양육태도	0.094444
10	가족정책	0.176471	가족탄력성	0.136364	다문화사회	0.1875	결혼이민자	0.088889

가족연구가 활발한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키워드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출현빈도 10회 이상 키워드가 존재하는 의약학, 자연과학, 복합학, 인문학, 사회과학분야의 키워드네트워크에 대해 응집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의약학은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하는 G1(노인치매)을 중심으로 G2(가족돌봄제공자), G3(다문화), G4(자아존중감), G5(암)가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다. 자연과학의 하위주제는 G2(가족건강성)를 중심으로 G1(양육스트레스), G3(일가족양립), G4(가족응집성), G5(가족탄력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G5(가족탄력성)는 G2(가족건강성)와 유일한 연계를, G6(결혼이주여성)는 G1(양육스트레스)와 유일한 연계를 이룬다. 복합학은 G4(삶의 질)를 매개로 G2(다문화가족)와 G5(가족기능)가 연결되고, G1(일가족양립)과 G3(가족)는 고립된 클러스터로 존재해 모두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인문학의 경우 활발한 연구영역인 G1(가부장적 권력구조)을 중심으로 G3(결혼)와 G2(가족서사)가 하나의 컴포넌트를 이룬다. 사회과학분야는 가장 연구가 활발한 G2(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G1(일가족양립), G3(가정과교육), G4(가족가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G5(가족상담)가 고립노드로 분리되어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

종합해보면, 인문학분야는 고립노드가 없다는 점에서 주제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가부장적 권력구조에 연구가 집중되고 소수의 개념에 의존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주제영역으로 연구 지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의약학은 노인치매에 연구가 다소 집중되기는 하지만, 자연과학 및 복합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다양한 개념의 발전과 분화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복합학 분야는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제간 통합성과 연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과학분야는 가족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이며,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들이 연계를 이루어 하위주제가 발전, 심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족상담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연구주제들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과학분야에서 실천영역의 발전을 향후 과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학문분야별 연구주제간 관계구조



V. 결론

본 연구는 코워드분석방법(Co-word Analysis)을 활용하여 가족 패러다임의 흐름과 변화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시기별·학문분야별 가족연구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등재학술지의 가족 연구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나누어 시기별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고, 학문분야에 따라 공학, 농수해양, 예술체육, 의약학, 자연과학, 복합학, 인문학, 사회과학분야로 구분해 분야별 연구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전체 키워드네트워크의 중심성분석을 통해 2001년 이후의

가족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가족기능' 등이며, 연구영역의 확대와 진화를 추동하는 연구주제는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성별차이', '부부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개중심성만 높게 나타난 성별차이, 부부갈등,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직무만족도 등은 가족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확장성있는 연구주제인 동시에 학제적·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가족연구는 우울, 자아존중감, 정신건강과 같은 가족의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역점을 두었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정책적 지원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키워드네트워크의 응집성(Cohesion)분석에서 2001년 이후 가족연구는 '일-가정양립', '젠더', '사회적 지지', '가족서사'라는 4개의 하위그룹으로 클러스터링 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주제영역은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문제는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책영역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서사'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젠더'와 연계되지만, '일-가정양립'과는 연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양립은 가족의 인문학적 접근과 가족사에서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 '젠더'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일-가정양립'에 의해 매개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가족연구에서 일-가정양립은 젠더와 사회적 지원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적 주제인 동시에 여성학과 사회과학간의 융합연구가 필요한 영역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성평등문제와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한 맞벌이모델(dual earner)로의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에 불과할 뿐, 맞벌이문제가 아닌 가족 내 성평등과 젠더이슈는 사회적·정책적 지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학문적 차원에서조차 평등한 가족관계와 민주적인 가족문화 조성은 사회적·정책적 과제로 논의되지 못한 채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시기별 분석을 통해 시간적 흐름을 관통하는 가족연구의 핵심주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그 시기의 사회현상과 정책, 학문적 트렌드를 대표하는 주제들이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우울'과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 지지'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중요한 연구주제이자 미래에도 중요한 키워드로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 핵심 키워드들은 그 시기의 사회현상과 정책, 학문적 트렌드 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1시기(2001~2005)에는 가족가치관과 가족기능, 가족제도와 같은 전통적인 연구주제가 주류를 이루는데 반해 2시기(2006~2010)에는 우울과 사회적 지지 외에도 일-가족양립과 가족정책이 중요한 개념으로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재혼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후 3시기(2011~2015)에는 우울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학교적응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같은 자녀문제에 관심이 증대하였고, 자살시도 등 위기가족에 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해졌다. 그리고 4시기(2016~2017)에는 불안, 삶의 만족도, 가족지지, 노인, 대학생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최근에 새로 등장한 불안, 노인, 대학생 등의 키워드들을 통해 불안사회로의 변화와 고령화 및 청년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가족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문분야별 비교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학문의 발전과 변화를 이끄는 중심주제는 학문

적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로 상이하지만, 연구대상으로서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은 공통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공학, 농수해양, 예술체육분야는 가족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가족관련 개념보다는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개념들이 연구주제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연구가 다소 활발한 의약학의 경우 우울, 치매,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고 가족, 노인,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자연과학과 복합학분야는 양육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 가족기능 등 가족학의 주요 개념들이 하위주제를 대표하는 반면, 인문학분야는 국가, 가부장제, 아버지, 욕망, 한국전쟁 등 주로 권력구조와 젠더가 하위주제를 대표하고 있다. 사회과학분야는 자연과학 및 복합학과 유사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가장 중심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이 외에도 성평등과 방법론적 개념인 매개효과가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연구가 활발한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의약학은 노인치매에 연구가 다소 집중되기는 하지만, 자연과학 및 복합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다양한 개념의 발전과 분화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복합학분야는 학제적·융합적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제간 통합성과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과학분야는 가족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이며,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들이 연계를 이루어 하위주제가 발전, 심화되어 왔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코워드분석을 통해 가족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찰하고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코워드분석은 키워드간의 관계를 통해 지식구조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키워드의 빈도를 분석하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가지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질적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조남옥·조규락, 2017: 16). 그리고 본 연구는 논문에서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족 패러다임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논문초록을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연구결과가 제한된 정보만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을 2001년 이후에 발행된 문헌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전에 수행된 연구와의 비교분석이 어렵다는 점도 향후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병준·어수형. (2017). 국내 포유류 연구의 주제와 동향.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1(1): 31-40.

고봉경. (1963). 「한국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권진영·이우형·김미현·이석준·이석준. (2010). 동시 단어 분석(Co-word Analysis)을 이용한 EA(Enterprise Architecture) 연구동향 분석. 「정보화연구」, 7(1): 31-48.

김두현. (1969).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명호. (1964). 「한국농촌에 있어서의 가족계획 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순옥·김영숙·전주람. (2011). 한부모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209-229.

김은정. (2015). 손자녀 돌봄지원 관련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가족복지학」, 50: 69-96.

김영환·이승민·강두봉, (2017). 부모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네트워크 분석을 적용. 「교육문화연구」, 23(3): 75-94.

김용학·유소영, (2013). 한일 비교 연구의 비교: 인문사회 분야 논문 키워드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44(1): 25-44.

김일환, 2011. 공기어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가족〉과 〈친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9: 35-70.

김정헌·고동완. (2016).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관광분야의 사회자본 연구동향-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8): 157-173.

김혜숙. (2000). 1980년 이후 가정관리 분야에서의 가족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243-255.

김혜리·박용태. (2004). Co-word 분석법을 이용한 기업수준의 기술지도-작성방법과 활용전략.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4: 357-360.

박만희, (2016). 동시단어분석을 이용한 품질경영분야 지식구조 분석. 「품질경영학회지」, 44(2): 389-408.

박수진·나주몽. (2016). 농촌개발 연구동향에 관한 사회연결망분석: 주제어 중심 구조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2(3): 29-43.

박충선·손화희·전혜정. (2008). 한국노년학 가족분야 연구 30년: 성과와 과제. 「한국노년학」, 28(4): 797-813.

심재후·최명길. (2013). 창업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벤처창업 연구의 지식구조 분석. 「지식경영연구」, 14(5): 75-86.

임윤서·심태은·이송이. (2015).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대학생의 생애역량과 대학의 리더십역량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1): 133-151.

윤병운·이창용·이학연·손경원·김소정. (2008). 「계량정보 분석방법론의 과학기술 적용사례 조사·분석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승정·김민용. (2017). 국내외 지식경영연구의 주제어 프로파일링 및 동시출현분석을 통한 학문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18(3): 81-99.

이문진·이연주·김재운. (2009). 가족여가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5-13.

이성용·김진호.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의 최근 연구 동향. 「지적장애연구」, 19(1): 1-19.

이수상. (2013).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이정연·유영주. (1990). 가족연구의 역사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14.

이현주·이인희. (2014).『관광경영연구』의 과거 연구동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활용. 관광경영연구, 61: 267-286.

장임숙·장덕현·이수상. (2011). 다문화연구의 지식구조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353-374.

정광현. 1967.「한국가족법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승환·호예담·송영수. (2014).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통한 국내 HRD 연구동향 탐색.「HRD연구」, 16(3): 1-33.

조남옥·조규락.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상담학연구』의 연구동향과 지식구조 탐색.「상담학연구」, 18(2): 1-19.

최정혜. (2010). 다문화가족 연구 동향분석: 2005년-2010년 발간된 국내 논문을 중심으로.「중등교육연구」, 22: 79-98.

최재석. (1966).「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함인희. (2014). 가족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한국사회」, 15(1): 87-128.

Bauin. S. (1986). Aquaculture: A field by bureaucratic fiat. In Clallon, M., Law, J & Rip, A.(Eds.),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ology of science in the real world,* 124-141.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Callon M., Courtial, J-P. & Turner, W. (1986). Future developments. In Clallon, M., Law, J & Rip, A.(Eds.),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ology of science in the real world,* 211-217.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Callon, M. (1986). Pinpointing industrial invention: An exploration of quantitative methods for the analysis of patents. In Callon, M., Law, J. & Rip, A.(Eds.), *Mapping the dyna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ology of science in the real world*, 163-188.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Dehdarirad, T., Villarroya, A. & Barrios, M. (2014). Research trends in gender differences in higher education and science: a co-word analysis. *Scientometrics*, 101: 273-290.

Freeman, L.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215-239.

Girvan, M. & Newman, M. E. J. (2002), Community structure in social and biological networks.

He, Qin. (1999). Knowledge Discovery Through Co-Word Analysis. Library Trends, 48(1) : 133-159.

Ravikumar, S., Agrahari, A & Singh, S. N. (2015). Mapp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scientometrics: a co-word analysis of the journal Scientometrics(2005-2010). *Scientometrics*, 102(1): 929-955.

Van Raan, A.F.J., & Tijssen, R.J.W. (1993). The neural net of neural network research: an exercise in bibliometric mapping. *Scientometrics*, 26(1), 169-192.

Whittaker, J. (1989). Creativity and conformity in science: Titles, keywords and co-word analysis. *Social Studies of Science*, 19: 473-496.

Zong, Q.J., Shen, H.Z., Yuan, Q.J., Hu, X.W., Hou, Z.P. & Deng, S.G. (2013). Doctoral

dissert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China: A co-word analysis, *Scientometrics*, 94: 781-799.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장임숙(張任淑):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NGO와 기업간 관계변동에 관한 연구, 2007)를 취득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속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다문화, 가족정책, 소수자정책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다문화, 가족, 젠더 정책의 입법네트워크(2017)", "한국 입법부에서 이민정책의 공동발의 네트워크(2017)", "가족친화마을 모델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2015, 공저)", "한국의 소수자 운동과 인권정책(2011, 공저)" 등이 있다(mukk73@naver.com).

〈논문접수일: 2018. 10. 10 / 심사개시일: 2018. 10. 12 / 심사완료일: 2018. 11. 02〉

Abstract

Analysis of Family Paradigm Using Co-word Analysis

Jang, Im Sook

This paper analyzes the trend of family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macro and temporal perspective in order to overview the flow of family paradigm.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evolutionary process of family paradigm using co-word analysis. Second,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temporal change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of family studie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by period and field. Analysis targets are for 5171 papers in the KCI Registration Journal published from 2001 to 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arly family studies focused on a few concepts, but the sub-topics gradually diversified as a variety of concepts emerged. The diversity of study themes and the structural differences of keyword networks were shown according to the academic field.

Key Words: Family Study, Research Trends, Family Paradigm, Co-word Analysis, Social Network Analysis